

마태복음 1 장

1.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진 글이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 2) 그와 표현은 달라도 내용이 똑같은 소개의 말이 2장에 있다. 찾으시오.
- 3) 2번의 답이 어떻게 1번의 답과 내용이 같은지 설명해 보자.

-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 2) 유대인의 왕
- 3) 아브라함은 유대인 민족의 시조이고, 다윗은 왕이니까.

2. 1) 족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世系

2) 우리나라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거의 없다. 만약 여자가 들어있다면 대단히 지체가 높은 여자였음에 틀림없다.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일 먼저 지우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고르시오.

다달, 라합, 롯, 우리야의 아내, 중에서 다수결로

3) 이름이 있는데도 굳이 남의 아내임을 밝혀 놓은 것은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야의 아내, 혹시 독자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면 다윗과 밧세바를 부부로 알파 염려해서 (성경은 인간적인 약점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4) 족보의 여자들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방인이 둘 (조상 자랑을 위한 족보가 아니라 욕보이기 위한 족보 같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족보이기 때문이다. 족보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로 하면 좋겠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자랑할 때 우리 조상이 더 양반이다라는 말을 잘 쓴다. 만약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의 족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자랑을 하겠는가?

우리집 족보는 왕의 족보이다.

4. 다른 족보는 그 이상으로(아담이나 하나님) 올라가기도 하는데 왜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이 났을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

5. 족보는 말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경의 족보는 인간적인 혈연보다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이가 아니면서 말이처럼 기록된 경우가 많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이가 아닌 사람들은?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6. 족보에 중요하게 사용된 동사는 두 개다. 하나는 '낳고'인데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나시니라. (스스로 태어나심을 의미)

7. 예수는 사생아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이다. 어째서 그런지 설명하시오.

요셉과 성적관계가 없었다는 성경의 기사는 받아들이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8. 1)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 :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2) 예수님의 족보에서 1) 번 답과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삭

9.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는?

1)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희생 제물에 합당한 (흠, 죄)없는 제물이어야 한다.(21절)

2) 예언이 되어 있었으므로 (22)

10.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11.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순종을 꼭 필요로 하신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고, 모세의 출애굽,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러하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런 예를 찾는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심지어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2. 요셉이 일반적인 남자들 이상으로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면을 찾아보시오.

- 1) 처음에 가만히 꿇고자 한 점 (차후에라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죽음을)
- 2)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 점

3)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한 점

13.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아가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다수결로

14. 8절-25절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즉 1-17까지는 인간 예수를 18-25 하나님이신 예수를

마태복음 2 장

1.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가 찾아왔나요?

모름 : 세 가지 예물이니까 세 사람으로 추측 (찬송가에 세 사람이라고)

2. 다음 각 사람들의 예수 탄생에 관한 반응들은 어떠했나요?

1) 동방 박사들 - 직접 관련이 없으나 위대한 탄생에 경의를 포함

2) 헤롯 王 -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하여 죽이려함

3)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 알기는 잘도 아는데 그 이상의 관심이 없음

3. 예수의 부활을 먼저 알고 이것을 증거한 사람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들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연약한 여자들이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아보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이방인이 먼저 알고 찾아온 점 : 정작 경배해야 할 사람은 꿈쩍도 않고

4.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도 잘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대로 사는 엉터리 신앙인과 비교할 만한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 알기는 잘도 아는데 믿음이 없음

5. 1)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가장 놀란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 낳다는 말

2)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은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내용은? (참고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다.)

별이 나타난 때

6.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호12: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의 인용인데 이것은 출애굽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이 곧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사본일까? 즉 예수의 피난이 먼저인가? 출애굽이 먼저인가?

예수님의 피난 :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먼 훗날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표한다는 말이다. (추가로 모형론 설명, 모리아 산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7.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탄생할 적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할 터인데 왜 이런 살육이 자행되었는가? (참고 창 3:15)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는 뱀의 마지막 발악이다.)

8. 18절에 인용된 렘 31:15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유대인의 포로시대, 즉 유다와 베냐민의 포로 장면을 의미한다. 라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까우며 벰엘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이다. 바로 이 부근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 즉 라헬이 무덤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포로가 된 자손들, 즉 '그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2차적 의미는 무엇인가?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9.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가 어디에? 명시적인 곳은 없다. 이사야 53장을 참고하거나, 구약에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보잘 것 없는 동네였음을 감안하거나, 갈릴리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말시와 천대의 의미, 메시아가 말시와 천대를 받을 것 (요1:46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10.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헤롯의 하는 일을 비교해 보시오. 누가 더 박력이 있으며? 무슨 차이 때문일까?

헤롯 : 꿈으로 지시하시는 일 ↔ 박력 넘치게 해치워 버린다. (선생님은 매를 들어도 조심스러운데 아이들은 책걸상이나 칼을 휘두르는데 누가 더 박력이 있는가?)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인간의 악독함 차이,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이런 것일까?

11. 유대인의 왕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요?

1) **사람(박사들)의 기대** : 왕궁에서(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2) **하나님의 의도** : 가장 작은 마을(베들레헴)

12. 1, 2장에서 마태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보시오

1) 구약 인용이 많다(=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

2) 족보,

3)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

13. 평안히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다. 아브람, 호세아, 다윗, 바울, 12제자들... 하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오

1) 혼전 아이,

2) 외국의 도피 생활,

3) 고향에 못가는 서러움(누가복음에는 갈릴리 나사렛이 본 동네로 됨) 애굽에서 돌아와 유대로 가려다 못가고 갈릴리로 간 것으로 됨 (마)

4) 결혼하고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함 (김 혜진)

마태복음 3 장

1.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깝다던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직 오지 않았나요?) - (천국의 현재성, 미래성에 대하여 추가 설명)

2.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나라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마지막에 질문이 다시 있음)

3.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느낌을 말해 보시오

의 : 약대 털옷(양털도 많을 텐데, 털도 털나름이지)과 가죽띠(잘 만들어진 옷에는 띠가 없다.)

식 : 메뚜기와 석청(배부르겠다.)

주 : 광야

느낌 : 안락함과 거리가 먼 생활

4.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이상한 점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시작했다. 왜 사람이 많은 곳을 놔두고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일까?

5.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주로 거한 곳,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갔던 곳,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셨던 곳,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던 곳, 모세가 부름 받기 전에 있었던 곳,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이 거의 없는 곳 =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곳: 때로는 사람도 없고, ~~땅~~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독 교제가 필요하다.

6. 요한이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퍼부은 욕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것이 어떻게 욕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탄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니. (욕도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좀 다르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God damn*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리 심한 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양인에게는 가장 치욕스런 욕이란다.)

7.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표현을 찾으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8. 세례 요한의 설교(말)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자신을 낮춘 점,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점 (교사, 목사는 예수만 나타내고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

9.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

나보다 능력이 많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10. 세례란 씻을 필요가 있는, 즉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도 세례(할례)가 필요한가?

1) **세례=십자가의 죽음**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죽을 것이니까)

2) **상징적 대속 의미**: 죄 없이 스스로 죽어 주시는 분이므로 죄 없이 죄 있는 인간되심

3)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선한 일에 동참(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교회의 선한 전통을 존중)

4) **세례 요한의 임무를 인정하는 것**: 대통령은 모든 교통 규칙을 정지시키고 갈 수도 있으나 규칙대로 갈 수도 있다.

11.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의 행차에는 예비자가 있었다. 왕보다 앞서 가면서 "물렀거라" 하는 사람을 길나장이라 했는데 요즈음 많이 쓰이는 길라잡이란 말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40:3의 인용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귀환하실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1차적 예언이다. (예언은 그 시대 그 현장의 의미와 먼 훗날 그리스도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12. 성경에는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 실체와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한의 세례가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성령세례

13. 요한이 못들 정도라면 예수님의 신은 참으로 무거웠던가보다. 사막이나 마찬가지로인 이스라엘에서 신발은 흙먼지 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그의 말을 설명해 보자?

천한 노예들이 하던 일이어서 자신을 그런 종보다도 못하다는 겸손의 말

첩경 (捷徑) : 지름길, 대로 혹은 *High way*

마태복음 4 장

※ 시험의 전개

1st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자존심을 건드림) 떡 덩이를 만들라(주린 자에게) - 먹음직

답,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2nd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자존심을 건드림)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인용) - 탐스럽기도 함

답, 또 기록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3rd 시험 :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 보암직

답,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은 자신의 뜻인가 아닌가?

아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2.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로 어떤 점을 건드렸는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요소 세 가지를 찾아보자.

자존심, 굶주림, 명예욕, 권력욕

3. 첫 번째 시험에 빠지면 고픈 배를 채울 수가 있다. 두 번째 시험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비슷한 광경을 상상해 보자)

영웅적인 무용담의 주인공, 슈퍼맨, 63빌딩에서 랜 몸으로 뛰어내린 사람

4.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였을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재시: 아담이 패배해 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나 시험에 이기는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한다.

첫 아담이 실패해 버린 것을 바르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임무 때문, 첫 아담에게 승리한 사단이

두 번째 아담을 그냥 둘 리가 없다.

5.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을 받은 요소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다음 세 가지 유혹과 관련지어 보자.

1) 먹음직= 1st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식욕)

2) 보암직= 3rd 시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3)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2nd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리라

6.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버린 원인과 반대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점 사이에는 공통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인가? (하와가 시험에 빠진 이유와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방법을 잘 살펴보자)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차이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시험에 이겼다.

7.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첫 마디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고 물음으로서 하와의 시선을 선악과에게만 쏠리도록 고도의 화법을 구사했다.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는 질문과 비교해 보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도 대단히 지능적이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느 말에 하와처럼 걸려 넘어지기 쉬울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8. 4장에서 구약 인용이 몇 번 있는가?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을 찾는다면?

5번, 그 중 하나는 사탄이 인용함: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다.

9. 사탄을 무엇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가?

시험하는 자 (3) (어떻게 생겼을까? 뿔 달린 귀신이라면 성경적이기보다는 tv적이다)

10.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우리 교단에서도 신학교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논쟁이 아주 심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도 소원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음 사역도 중심지에서 유명 인사들이 시작하면 주변으로 퍼져 나가기가 아주 쉽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나 부른 제자들은 뜻밖이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셨나?

갈릴리 지방 (가장 비탄받은 지역) 어부들 (가장 천대받던 직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11. 예수의 사역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면?

가르침, 천국 복음 전파, 병과 악한 것을 고침, (수리아?)

12. 물려온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매력이 끌렸을까? 예수님은 특히 어떤 분이라고 소문이 났을까?
병 고치는 분

13.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 어느 말이 이루어진 셈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4.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을까?

천국

데가볼리 (DECA + POLIS) : 열 개의 성읍

마태복음 5 장

1. 다음에 든 예는 팔복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세요.

1)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2) 예수 그리스도

= 화평케 하는 자

2)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 었도다. (시 42)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3)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 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눅18)

세리= 심령이 가난한 자.

4)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찢어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찢을 것이 없으 리이다. 다윗이 아버지께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 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삼상 26)

= 온유한 자.

5)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 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고후11)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6)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 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 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 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 50)

= 긍휼히 여기는 자

7)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7)

= 애통하는 자

8)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갇힌 땅으로 내가 그 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 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민14, 민32)

= 마음이 청결한 자 (=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9)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절감한 상태를

= 마음이 가난하다.

2. 다음은 성령에 의해 깨닫게 되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다. 팔복을 참고로 빈 곳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 복의 기초는 (심령의 가난)이다.

2)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발견도 (심령의 가난)에서 가능하다.

- 3)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된다.
- 4) 남의 비난이나 모함에 분노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면 (온유)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로 인해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3.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었던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관심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관심의 방향이 쏠리게 됩니다.
- 1) 이것을 어떤 자라고 합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 2)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자일까?
궁핍히 여기는 자(=이웃에게)
4. 팔복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관심이 자신에게로 향하는)부분과 그 결과 밖으로 드러나는 (관심이 외부로 향하는)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5. 팔복의 상품 중에 1) 어느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다수결로) 2) 천국을 두 개나 탐다는 것은 비경제적이 아닐까?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되면 위로나 배부른 것은 소용이 없지 않을까? 땅은 받아서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답하도록 해 보세요. (전부 같은 상품)
6. 복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어떤 자들일까?
핍박받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
7. 친구들로부터 욕을 듣고 핍박도 받고 악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무조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과연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내게 복인지 아니면 모욕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인지 나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8. 팔복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2) 자신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3) 이웃을 향하여 (궁핍히) 여기는 마음을
9.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서는 순결 서약식을 거행했다. 시대의 흐름에 거역하는 행위이다. 우리 만이라도 타락해 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 부합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자는 의도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셈이다.
10. 소금과 빛이 지닌 특성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을 든다면?
적은 양으로 넓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11.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12.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많이 무시하고 행동을 하셨다. 가령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여러 차례 무시하고 궤변(유대인들이 보기에)을 늘어놓았다. 율법을 많이 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강조점을 변화
13. 히브리 글자는 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일 점 일 획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계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말은 일 점 일 획으로 인해 뜻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나 히브리 글자는 일 점 일 획으로도 뜻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 살인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결과)보다 그 (원인)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 마음 혹은 결과, 원인
15.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형제와 화목하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로 형제와 화목해야 하니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니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형제와 화목해야 하니깐.
16. 간음죄에 대하여 엄격한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면 눈 없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채점 방식 남학생만 다수결로)
17. 放生이란 불쌍한 물고기를 놓아주어 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방생용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생은 악이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방생용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방생을 하지 맙시다라는 주장과 비슷한 예를 찾아보시오.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32).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버리지 말라

18.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바꾸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지적은 몇 번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3번

배고픈 사람이 빵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1) 맛있어 보이는 빵을 자세히 보았다.

2) 먹고 싶은 생각과 군침이 돌았다.

3) 훔쳐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4) 드디어 주인 몰래 하나를 훔쳤다.(삼학생들은 2번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19. 지난 해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7쌍이 결혼해서 그 중 1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 맹세에 대한 교훈도 핵심은 맹세를 해라 혹은 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마 26장) 바울도(고후 1:23, 갈 1:20)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21. 1,000원을 빌려 달라 하면 2,000원을 주고 숙제를 해달라 하면 시험까지 대신 쳐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서가 흐트러질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표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논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설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 (현명하게, 사랑으로)

22.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밥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성미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도무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1) 본문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2) 예수님의 사역에서 설명한다면?

1)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2) 자신이 그러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

23. 5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일 만큼 수준 높은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참고해서 5장에 제목을 달아보시오.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 장

1.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여야 할 것 3가지를 찾아보시오.

(구제, 기도, 금식)

2.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을까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까?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요점이다. 학교 때려치우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 두라기보다는 제대로 다니라는 것인 경우가 더 많다.

3.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방인: 말이 많아야 = 자신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우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4.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한 자신의 경우가 있다면 적어 보시오.

5. 중언부언과 다르긴 하지만 내용상 동일한 다른 종교의 기도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백일기도, 3,000배

6. 주기도문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 하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또 다른 시선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7. 다음 글은 '태백산맥'에 나오는 기도인지 주문인지 한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우리네 조상들이 하던 기도가 대체로 이와 비슷할 것이다. 주기도문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말해 보시오

"신령님, 신령님,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신령님의 영험으로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신령님, 신령님..."

기도의 대상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

8.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해서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음을 남에게 알렸는가?

슬픈 표정 (홍한 얼굴) = 머리를 감지 않고 세수도 않고

9. 구약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고기를 태우는 향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헌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10.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눈이 나쁜 사람: 1)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다. 2) 재물을 땅에 쌓는다. 3) 두 주인을 섬긴다. 4) 목숨보다 음식을, 몸보다 의복을 더 중히 여긴다. 5) 키가 늘어났으면 하고 용을 쓴다.

11. (22-23)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유이다. 무엇을 눈으로 비유하였는지를 이해하면 이 문장이 문맥을 벗어나는 말이 아니다. 눈이 어두운 것처럼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12. 예수님께서 먹고 입는 문제를 두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음식과 옷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음식과 옷보다 더 값어치 있는 (목숨과 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13.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음식과 옷에 대하여 유대인들보다 우리를 더 책망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하여 이런 걱정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행과 친구들의 눈) 때문에 *maker*가 있느니 없느니 도시락 반찬에 무엇을 넣었느니 안 넣었느니 하고 문제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14. (13번에 추가) 그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충고를 해 줄 수 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겠느냐?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좀 더 차원 높은 고민을 하라는 뜻이다." 이 말을 역설적이면서 짧은 명령문으로 줄여 보시오.

= 그래, 짐승처럼 살아라. ↔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15. (31-32)이방인들의 기도가 잘못이라면 왜 잘못인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서가 되는 단어를 찾으시오.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16. 우리는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안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공부를 그만 두란 얘인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란 얘인가?

왜 공부해야 하느냐를 먼저 정립해 두어야 한다. 나의 입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공부라면 열심히 하고, 나 자신이나 부모님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

17.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어 보면 나이팅게일이나, 이순신, 슈바이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로 연예인이나 *SPORTS STAR*를 좋아한다고 한다.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명예롭지 못하게 죽은 가수에게 일편단심인 경우도 있는데 좋아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항변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먹고 입는 문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했더니 너는 안 먹고 안 입느냐고 반항을 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이 된다)

부수적인 (덜 중요한) 것보다 본질적인(더 중요한) 것에 더 관심과 비중을 두어야 한다.

18.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이 있다. 물론 오해지만. 몇 절인가?

26: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26절을 답으로)

19.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더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역 =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역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땀방 뚫을 일이 아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땅의 것도 주신다)

20. 금식, 기도, 재물, 구제에 대한 교훈을 요약하면 이방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행동이 이방인의 행동과 다른 점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차이 (신전 의식으로 산다.)

21. 6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의 밑바탕에 두라

22.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6장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다음 도표의 (1)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자세를 (2)에는 그렇지 아니한 자의 자세를 적어 보시오.

금식에서	(1)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보이라
	(2) 슬픈 기색으로 흉한 얼굴을 함
기도에서	(1)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2)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는 것, 중언부언
재물에 대하여	(1) 하늘에 쌓아두라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2) 땅에 쌓아 두는 것 =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쓰는 것
구제에 관하여	(1)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2)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

23. 범죄한 사람들 특히 보험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그것은 재물 때문에 그릇된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어느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23절

24. 재물에 대하여 자세가 잘못된 경우에는 1) 관심을 온통 재물에 쏟게 된다(21), 2) 사물을 보는 눈(판단력)이 흐려진다(23), 3)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24).

마태복음 7 장

1. 형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비판(어떤 종류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정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에게 돌보가 있으므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2. 비판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권면할 수 있게 된다.

3. 사도 바울은 (고전 9:22)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그만 둔 적이 있다(행 13:46).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막무가내로 전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만 골라서 종교적인 논쟁을 즐기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과 굳이 언성을 높여 가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어느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7:6

4. 7:7-12의 말씀은 1)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2) 그렇다면 12절의 남은 누구일까?

하나님

3)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4) 3번 답이 6 : 33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먼저 그의 같다.

5)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

5. 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구한다고 얻을 수 있을까? 숨겨진 보물이 전혀 없는데도 찾으려 찾아질까? 아무도 없는 집을 두드리면 열릴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祈禱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 가를 알아야 한다.

6.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굉장히 출세를 했을 것입니다. 장래가 보장된 출세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길이 완전히 바뀌어 험난한 고생길로 들어섰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며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고생길, 혹은 荆棘(가시와 찔레)의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좁은 문과 협착한 길

7.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매로 =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의 유무

8.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할 정도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닐까?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신의 열심, 자신의 자량에 근거한 것이라면, 전도를 열심히 하여 자기 제자로 만드는 일,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서 자신의 종개로 만드는 일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9.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이다. 기초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행함 = 말씀을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8 장

1. 지금은 문둥병이 치료 가능한 병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형(하늘이 준 형벌)이라고 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당부는 무엇을 비밀로 하라는 뜻이 있을까? (8장 끝에 나오는 귀신들의 이야기도 참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심

2. 백부장 자신에게도 상관이 있어서 그가 직접 오지 않고 명령만으로도 자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질병관계도 그러하다고 인정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가? (메시아라는 답은 피할 것)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자연계의 주인 (만물의 지배자)

3. 백부장 덕분에 명달아 칭찬을 받은 것은 누구인가?

이방인

4.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된 것이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만큼 유대인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말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만 별로지만)

8:11-12

5.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6. 다음은 성경 구절의 일부분만 영어로 옮긴 것이다. ONE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제자 중에 ANOTHER가 또 가로되 ... 1)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둘 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one, another, the other은 성질이 같은 것을 나타낸다.)

2)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두 가지(20절과 22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된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20절) 세상적인 욕망을 다 포기하는 것이다.

22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7.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가 되지 않았는가?

역이 성립됐다. (부정한 문둥병자가 정결한 예수님에게 닿으므로 오히려 정결해졌다.)

8.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한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한다. 그런 베드로를 로마 교황이 보면 배가 아플 일은?

베드로가 장가든 일

9.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 바다의 풍랑이 대단히 거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어부였던 제자들이 무서워했으니

10. 예수님은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사셨던 모양이다. 자을 학습에 매인 우리보다 더 심했던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거센 풍랑 가운데서 곤히 잤다.

11.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참으로 재미가 있다. 배가 가라앉게 되자 (어부) 출신 제자들이 (목수) 출신의 선생님께 살려달라고 했다. Hifi hifi. 살려 놓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다. 애당초 (믿지) 않았다는 말이다.

12. 좁게 보면 가다라 지방, 넓게 보면 거라사 지방인데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는?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2) 일정한 때가 있다. (그 때까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13. 그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14. 왜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을까? 아이고 머리야. 추측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서 기르도록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 돼지가 이렇게 많았을까? 또 한 가지 추측은 결과를 보고 짐작을 해 보자.

1) 아마 성분이 좋지 못한 자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2) 34절이 귀신의 의도일지도 모른다.

15. (28-34) 본문을 읽을 때 귀신에게 놓임 받은 사람의 기쁨이 더 크게 와 닿는가? 아니면 죽은 돼지 떼가 아까운가?

돼지: 점수 없음, 농임 받은 자: 솔직하지 않으면 1점 -, 진짜는 1점 +

16.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여러 명의 조연들이 등장한다. 문둥병자, 백부장, 귀신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 모습이 조금씩 달랐다. 아래에 그것을 요약해 놓았다. 그것을 더욱 간단하게 요약하시오.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문둥병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백부장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귀신

세속적 출세와 거리가 먼 분: 제자들,

자연도 다스리는 분: 풍랑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잠자는 잠꾸러기, 느닷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이한 분(메시아)이라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9 장

1. 만약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울까?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가짜 메시아라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실행했을까?

전자: 후자는 바로 판별이 나니까 (실제는 전자가 더 어렵지만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일). 전자의 반응은 참람하다는 비난, 후자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2.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받았는가?

저희 = 데리고 온 사람들

3.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시오.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 친구들의 우정과 열심 덕분에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받았다.'

우정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 때문

4. 다음 문장의 _____부분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보시오.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음 문장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는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진 덕에 병이 나았다.'

1) 주술적인 의미 (X)

2)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O)

5.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참람하다는 이유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람이.....

6. 병 고치러 왔다가 죄사함까지 받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좀 특이하다.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장면과 어떻게 다른가?

예상: 위대한 예수.....

다른 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7. 마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누가복음(5:28)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자기 일을 기록하면서 칭찬이 될 만한 것은 자제? 뻘다.

8. 마태가 베푼 잔치에 웬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무슨 의도일까?

새로운 길을 떠나는 마당에 예전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9.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안에만 집착하고 불신자들에게 욕을 듣는 원인 중에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불신자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그저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열심히 제사만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신 친구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를 살펴보자.)

공훈: 무수한 종교전쟁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좋아한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데 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오해이다.

10. 그는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을 앓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갔다.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으러 진찰실에 들어가자 군의관이 고함을 질렀다. "야 다가오지마, 거기 서" 급히 마스크를 하고 난 후에 환자를 멀찍이 세워둔 채 진료를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의사가 되었다. 그 의사 앞에서 환자가 느끼는 서러움과 自愧感을 상상해 보라. 9장 본문에는 바로 이런 의사가 있다. 누구인가?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11.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하셨다. 무엇인가?

1) 하계 될 때가 있다, 2) 낡은 옷에는 낡은 조각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12. 낡은 옷에는 생베 조각이 어울리지 않고,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금식의 문제로 대표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로운 복음 즉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전환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고 물었다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좀 나빴을지도 모른다.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

우리는 낡은 옷, 낡은 부대고 자기는 생베 조각, 새 포도주란 말이지

13.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시오.

죽음을 잔다고 말함 = 깨어날 때가 있다.

14. 35절 말씀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구절이다. 1) 어디서 보았을까? 2) 두 번이나 나오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밑바탕에는 어떤 정신이 깃들여 있는가?

1) 4:23, 2) 무리를 민망히 보심

15. 마태는 8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설명을 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추가로)

죄를 사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새 시대를 여는 분

16.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유명해짐에 따라 비난하는 자들의 비난도 점점 거세어진다. 아마 이것을 경계하여 때가 되기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신 것 같다. 9장에서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비난의 내용은?

참람하다. 부정하다. 귀신을 업었다

17. 내가 공흘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는 질문의 답이 되는지 설명해 보시오.

죄인을 저주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진정한 제사(하나님을 섬기는 일)는 이웃에게 공흘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18.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루어 짐작하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본문에 많이 있다. 찾아보자

죄를 사하심, 죽은 자를 살리심, 새 시대를 선언, (예언의 성취 (사35: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19.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이 들고 춤을 추고 싶도록 감격적이고 기뻐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0. 단순한 퀴즈용 질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소경 (9:18-34)

21. 20번과 같은 단순 암기만을 요구하는 질문은 성경공부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새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질문: 소경들이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다.(삼하7:12-16, 행 2:30-35)

참람(僭濫) : 분수에 넘쳐 외람함(=하나님을 모독함)

마태복음 10 장

1. 열 두 사도 중에 1) 형제간인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2) 이름이 같은 사람은?

시몬, 야고보

3) 예수를 판자는?

가롯인 유다

참고: 시몬(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 유다

2. 전도자가 지녀야 할 마음은?

1) 9:36: 불쌍히 여긴다, 2) 10:8: 거저 준다, 3) 10:5-6: 내 동족부터, 4) 10:9-14: 의식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3. 몹시 미운 친구에게 복 받으라고 말해 주기는 어렵다. 아니 오히려 아끼지 말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그가 받은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 것이 되니까

4. 전도할 목적으로 빵도 사주고, 순대도 사주고, 닭발도 사줬는데, 더구나 마음에도 없는 말로 예쁘다, 멋있다, 아양도 떨었는데 전혀 교회로 나올 생각을 않는다. 이걸 그냥... 자신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1)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므로 답답할 이유가 없다.

2) 불쌍히 여긴다. 더 큰 심판이 있으므로

5.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법을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것을 신앙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

6.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예정된 일이다. 1)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말하는 구절과 2) 이런 핍박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는 구절은?

1) 17: 사람들을 삼가라 (Watch out), 2) 18: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7. 1) 앞으로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대인 (국회)과 이방인(총독과 임금들) 그리고, 가족

2) 핍박받는 제자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정된 일이다.

8. 1)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뜻으로 가장 심한 욕으로 생각하면 된다)이라 불렀으니 그 집 종이야 무슨 대접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예상된다는 말인가?

더 심한 핍박

2) 핍박받는 제자들이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 정도 찾는다면?

1)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 2)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3) 모든 세상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

9. '자기 십자가를 진다(38)'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가? 본문 내에서 그 예를 찾아보시오.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10. 35-38에 의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가족과 불화해도 괜찮다. 교회 일이라면 가정을 다 버리고 나와야 한다.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뜻일까? 무엇을 말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가족에게서 불화하여 고난을 받거나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가족을 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불화하란 뜻은 아니다. 10장 전체의 문맥이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

11. 40-42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마지막 말씀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 제자들이 많은 핍박에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이유는?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고, 나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이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나를 의인으로 받으면 (의인의 상)을 받고 나에게 (생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 장

1. (나로 인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아주 짧은 단문으로 고치시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2.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 좀 다르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즈음 나타나는 사이비 메시아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줌 (능력을 실제로 보여줌으로 증명)

3. 요한은 뱃속에서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뛰놀았던 사람이다. 세례를 주던 때에도 성령의 증거를 들었던 그가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다. 아마 옥에 갇힌 것과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던 것과(3:10) 달리 메시아의 사역이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이 원인인 아닐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을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 추가로 무슨 당부를 하셨는가?

실족하지 말 것

4. 세례 요한도 한 때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유대인들의 기대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은 분명하게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음을 알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1) 선지자보다 나은 자 =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2)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5. 세례 요한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선지자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해도 천국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각오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성을 빼앗듯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침노, 전쟁하듯이.

6.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한 것 같다. 무슨 놀이를 했을까?

잔치 놀이 (피리와 춤)와 장례식 놀이(애곡과 가슴)

7. 놀자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애곡을 해도 아이들은 장단을 맞춰 주지 않아서 나쁘다. 그러나 어른들은 더 나쁘다. 요한이나 예수는 놀자고 한 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어른들은 놀이터에서 어떻게 했기에 더 나쁠까?

장단을 맞춰 주기는커녕 도리어 비난을 했다. (놀자는 아이를 비난)

8.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 다닌 듯싶으나 실상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참으로 외롭고 괴로우셨던 것 같다. 11장에도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천국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시오.

요한의 의심, 유대인들의 냉담과 비난, 특히 능력을 많이 행한 고을들에서의 냉담

9.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많고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까?

어린이들처럼 순수함을 지닌 자

10.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내용을 2군데 찾아보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외)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과 대비:14-19) =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 자신을 아들이라 함 (26-27)

11. 우리나라의 명에는 단독으로 매는 명이지만 이스라엘의 명에는 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명을 매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명을 매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내 짐을 내가 지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는 말씀인가?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

1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 주신 명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지고 있는 우리의 짐은 가벼운가? 아니라면 왜 그럴까? 바울의 다음 말씀을 참고 하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찌를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 4:8-9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5:10

가벼운 것이다. (아니라면 명에와 짐을 내가 지고 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 장

1. 예수님의 의도는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파하고자 함이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송사하기) 위함이다.

2. 7절은 어디선가 본 듯하다. 어디서 보았을까? 찾아서 차이점만 적어보자.

마 9:13 자비 → 긍휼

3. 제자들의 행위는 신 23:25에 따르면 잘못이 없지만 당시의 안식일 규정으로는 분명히 위법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셨다. 어떤 이유로?

1) 다윗의 경우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2) 안식일 규정보다 더 큰 규정이 성전법인데 성전법보다 더 큰 내가 있다.

4. 우리도 교회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기면 안 되겠지만 어겨도 될 것 같은 때는 어떤 때일까? (군에서의 주일?)

1) 사람과 관련 = 자비를 베푸는 경우, 2) 하나님과 관련 =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의 예에서)

5.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식이다. 1) 안식일에 양이 구렁이에 빠졌을 때 우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넣어 준다, 2) 위험하지 않으면 이틀날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음식을 넣어 준다, 3) 위험하고 스스로 나오도록 도와 줄 수 없으면 구해 준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 보이는가?

안식일의 의미 (근본정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음

참고> 한국 교계의 뛰어난 인물 중에는 우리 교단 출신들이 많이 있다. 듣기 좋은 말인가 아니면

슬픈 말인가? (왜 교단을 떠났는가?)

6.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인데 예수님의 어느 말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냥 듣고 넘어 갈 수 없는 말인가? (안식일 문제에서만)

나는 성전보다 큰 이, 안식일의 주인

7.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일을 하는 것이다.

8. 안식일 문제로 시골벽적해진 이때에 예수님의 어떤 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였을까?

조용한 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

메시야는 (18-21)(18-21) 이방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자이지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조용한 분이시다.

9. 본문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대칭을 이루는 말은?

다윗의 자손

10.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하셨다. 요약해 보자.

1) 귀신이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2)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하는 일도 바알세불을 힘입은 일이나?

3) 실과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11.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곧 성령을 훼방하는 일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을 훼방하는 일과 거역하는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10번 질문의 답도 참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

12.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전 인류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나중이라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로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을 참고로 하면 언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 요나의 표적

13.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고 있다.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이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런 이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

1) 기득권 수호 차원 or 2)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14.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정죄할 것입니다. 對句가 되도록 말을 완성시켜 보세요.

“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 알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갇혔다가 나와서 말만 가지고 심판을 외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한 예수님의 말을 왜 안 들었니?”

15. 남방 여왕은 무엇이라고 정죄할까요?

“나는 그 먼 곳에서 지혜를 찾아 왔지만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바로 곁에 두고도 찾지 않았단 말이지?”

16. 과거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유교 정신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했으나 그것이 배척되면서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그런 셈이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에 해당될 것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하게 되었다.)

(빈 방에 다른 주인이 있어야 한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들여라.

17.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냉담할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았던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 혈통적인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가 더 중요하다

※들레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귀신들이 쫓겨나며 지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마태복음 13 장

1.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추는 것이 된다.

2. 기독교의 진리이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공평치 못한 말씀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2)

3. 씨 뿌리는 비유를 정리해 봅시다.

1) 길가에 떨어진 씨 - 새들이 먹었다. - 깨닫지 못함

2) 돌밭에 떨어진 씨 -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마름(원인이 내부) -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한 채 열정으로 뛰어다니다가 재 풀에 넘어지는 경우)

3)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 - 가시에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함(원인이 외부) -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힘

4) 좋은 땅에 떨어진 씨 - 결실

4.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 ↔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문맥상으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되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다. 이미 뿌려졌다.

5. 이 비유의 제목은 '여러 종류의 밭'인가 '씨 뿌리는 비유'인가?

밭에 관심을 두면 -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라=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씨에 -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하면 결실하리라.

뿌리는 자에 관심 - 비록 결실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결실을 거두리라.

좋은 씨를 골라 좋은 밭에 뿌리는 이 모든 과정은 뿌리는 자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풍성한 자신의 수확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좋은 땅이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되나? 현재 자신의 의뢰이지 그 당시의 예수님 의뢰는 아닐 것,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네가 돌밭이든 자갈밭이든 씨 뿌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

6. 열매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참고 6:29) ↔ 나의 어떤 행위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일뿐이다.

7.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이라는 말인가?

1) 깨닫고, 2) 환난이나 핍박을 이기고, 3)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극복하고, 4) 열매를 많이

8. 전도를 아무리 해도 놀려 가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니? 이런 친구는 위의 비유에서 어떤 씨에 해당할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

9. 학교에 다니던 시절은 온상과 같아서 비교적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때이다. 물론 학교 선생님과 주일 문제로 고민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쉬운 때이다. 어른이 되어서 취직을 하고 난 후에는 진급도 해야 되고 봉급도 남보다 더 받아야 되고 교제도 더 많이 해야 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과 멀어지게 되기 쉽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어려운 이런 신앙을 어떤 씨와 같다고 하겠는가?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

10.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다음 넷 중에 어느 것일까? 1) 지금은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2) 곡식을 뽑을까 염려된다, 3) 나중에 태울 때가 있다, 4) 알곡은 곡간에 놓는다. (악인이 잘 산다고 부러워 말고 기다리라)

3)

11. 지상 교회는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 어느 비유가 그것을 보여 주는가?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12.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으나 크고 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임을 보여주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

참고: 누룩 비유(작으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13. 사도 바울은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예로 있는 자에게 주인에게 진심으로 복종하라고 가르침으로 노예 제도를 동조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

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간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종래는 노예 제도가 부정되어졌다. 이처럼 표나지 않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천국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비유는?

누룩 비유

14. 믿음이란 언뜻 보기에 별 것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 이웃들에게 선한 열매를 나누어주게 될 것임을 말해 주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

15. 감추인 보화 비유는 천국은 숨겨진 것이므로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찾은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라)

16.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고 여길 때가 많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음은 세상에 있고 몸만 교회에 있는 경우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전 15). 바보같이, 이 좋은 날 놀러나 가지 무엇하러 교회 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런 비난 (쓸데없이 그 밭을 무엇하러 사?)을 들었다면 혼자서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을까?

치~ 날 바보라고? 대답 못해, 이 밭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나 알아?

17. 교회 다니는 거 좋지. 안 다니는 거보다는 좋겠지. 수양도 되고 목사님이 나쁜 말 하겠어? 시간 있으면 가 볼게. 이런 사람들은 막연히 좋다는 정도이지 참된 가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1) 어떤 비유에서 2)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비슷할까?

값진 진주 비유에서, 무엇하러 그 비싼 진주를 전 재산 다 털어 가면서 사? (=그게 그렇게 비싼 거야?) 좋다는 정도는 아는 사람(13번 비유는 좋은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

18. 바다의 그물 비유와 가장 가까운 내용이 있는 비유는?

가라지 비유, 골라내는 일 (=심판이 있다.)

19.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원인은?

과거나 출신을 알기 때문

마태복음 14 장

(1번 문제를 풀어 보고 채점 후에 2번으로 넘어가시오)

1. 본문의 시제는 과거지만 잘 보면 대과거로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과거 이전의 기록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데 그 부분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 (14장 끝에 답이 있으니 채점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오)

2. 1번 답을 본 후에 그렇다면 13절의 들으시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1, 2절

3.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도 되는가? 그의 목숨이 일개 여아의 춤 값밖에 안 되는 것인가?

믿는다고 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더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듯이 요한을 불법적으로 처형한 헤롯과 헤로디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4. 헤롯이 두려워한 것 세 가지는?

1) 민중 2) 자신의 권위 손상 3) 요한

5. 헤롯은 결코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두려워했는가?

자신의 호언 때문에(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과 예수를 처형한 빌라도의 공통점은? : 원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6.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 반응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요한처럼 용감하게 헤롯의 비리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따르는 민중을 지휘하여 헤롯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멋진 예수라고 인기가 팍 오를 텐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으로서는 갈 길에 따로 있었다.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굴함? (나라를 위하여 큰 임무를 맡으면 가족이나 동료의 죽음도 무시한 예가 있다.)

7. 베드로도 물위를 걸었나? 그런데 왜 빠졌나요?

조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걸었을 텐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한다. 환덕이 이야기

8.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시곤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좀 다르다. 병을 고쳐 주신 이유가 어떻게 다른가?

불쌍히 여겨서

9.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을 과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됐다. 그 합리적인(이성적인) 사고가 가끔 기독교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1)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제자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2) 비합리적인 예수님의 답답한 말솜은?

1)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2)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0.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다. 구걸하고 있는 앓은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본문에서도 이렇게 비합리적인(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기는 하다. 어디에?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위로 오라 하소서 (28)

11. 과학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에게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보라. 이 정도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온 인류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떡이 되겠는가? 결국 이 五餅二魚의 기적은 무엇을 예표 하는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12. 五餅二魚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호수를 건너가게 하고 무리들을 보내는 일을 서두른다. 1)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보자. 2)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1) 요한이 죽고 난 후에 방황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을 삼을 생각이 있었을 것,

2) 보통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음.

13.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 고생을 시키는 것은 무슨 악취미 때문일까?

시련의 기간을 지나서 믿음은 완성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1번 답: 3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15 장

1.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해서 말썽인가?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비난이 아니라 작은 일로 비난 받는 경우, (부모에 대한 잘못, 주차 잘못, 내 자존심에 관련된 사소한 일들)

2.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켰다. 부모님에게 주거나 부모님을 위하여 쓸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하나님 것이다)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그런 후에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셈이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부모를 섬긴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노력했지만 형식과 모양만 남고 내용과 알맹이는 다 빠져 버렸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한 단어로 말하시오.

外飾 (15:7)

3.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 즉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치자. 너희는 _____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

4. 떡 먹을 때란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가?

식사

5.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드려서 섬기는 것과 부모나 이웃에게 드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1)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 기도

2) 간접으로 드리는 것은?

공의와 이웃 사랑.

유대인들의 잘못은 2번을 무시하고 1번에 치중했으나 그나마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

6.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언제나 밋보이게 마련이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알고 계셨다. 누가 무어라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말씀은?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7.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은 _____이다. (13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정답을 찾으시오)

원수들이 뿌려 놓은 가라지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8. 사람들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점이다. 본문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14)

9. 식사 전에 손 씻는 친구가 있으면 가르쳐 주자. 식사하기 전에 굳이 손 씻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1)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은 씻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에 중점이 있다. = 손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

2) 상식적인 차원을 신앙적 차원으로 규정짓지 말라 (너무 확대해서), 상식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예전의 파마, 미니스커트 등등)

10.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대단히 무시하셨다. 무시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시오.

1) 대답을 아니 하셨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부탁할 정도로), 2) 내 백성이 아니라고, 3) 자녀가 아니라 개라고

11.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여자를 박대했을까?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 그 정도로 물려갈 여자가 아님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려 하심. (믿음이 좋을수록 심한 수련을 받음)

12.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불쌍하고 병든 자들(=

무리들)을 고친 글을 읽으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15:29-31의 기사 중에서 어떤 내용이 그것을 보여 주는지 말해 보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아니고)

13. 헤롯의 관심을 받게 되고(14장) 유대인들에게서 걸림이 된 것(15장)을 아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쪽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 유대인들이 극히 꺼리는 이방인의 땅에서 가나안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부스러기밖에 줄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시오.

1) 그 다음 사건에서 사흘이나 따라다닌 무리들은 분명히 이방인이 많았으며 풍성히 먹었다.

2) 이방인의 지역으로 복음을 위하여 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이다.

14. 마 14장의 오병이어 기사와 15장의 칠병이어 기사를 비교해 보자.

구분	5병 2어	7병 2어
장소	벳새다	갈릴리 호수근처 어느 산
시기를 짐작케 하는 말	잔디	땅
재료	5병 2어	7병 2어
먹은 인원	여자와 아이 외 5,000 명	여자와 아이 외 4,000 명
남은 음식	12 광주리	7 광주리

마태복음 16 장

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자들도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 왜 바리새인들은 또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일까? 1) 많은 기적을 보고도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누구와 다투었는가?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단

2)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기적(증거)도 소용이 없는 법이다. 이런 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신병 (의처증, 의부증): (믿음이란 어떤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2.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犬猿之間이다.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를 시험에 빠지도록 謀議를 했다.

3. 무언가 흠을 잡기 위해서 물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대답만 들었다. 보여 달라는 하늘에서 온 표적은 안 보여주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 예수님의 다음 두 가지 대답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보세요.

1)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 주변 상황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2)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은 보아도 모르는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힐 의사가 없다. 나중에 보아라.(부활이후)

4. 예수님이 보여준 요나의 표적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린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한 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시오.

예수의 고난, 죽음, 사흘만에 살아남

5. 예수님은 여러 번 대적자와 싸움을 피해 가신 적이 있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점차 강하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오고 있다(13 장과 15장과 비교). 여기서도 격렬하게 싸우면서 그들을 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정황 증거는?

제자들이 양식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은 점

6.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외적 의식에 치중하여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렸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의 모든 성경을 부인하고 사단과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현실지상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7.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 1) 사인이 빗나간 것이 몇 번인가? 2)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1) 2번: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2) 관심이 서로 달라서: 제자들 - 먹는 문제 (육적인 것, 사람의 일), 예수님 -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8.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접을 받고 교황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본문에 있다. (참고로 1대 교황은 베드로이다). 몇 절일까?

마 16:18

9. 교황이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된 근거도 파문이라는 무기 때문이었다. 중세의 유럽의 왕들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파문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파문의 근거가 된 구절은?

마 16:19

10. 8번, 9번에 나타난 로마 교회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아보시오.

마 16:23 -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11.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베드로의 고백 =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스도 =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1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전의 SFC 수련회는 7박 8일이 기본이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고생도 엄청스럽게 하곤 했다.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몰래 나가서 사 먹은 일, 목사님께서 해준 재미난 이야기, 된장국 한

그릇 더 타다 먹은 것 등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야, 도대체 수양회 뭘하러 갔니?”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얘 학교 왜 왔니?” 하면 태연스럽게 대답한다. “밥 먹으러요”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13.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다음과 표현되어 있다. 무슨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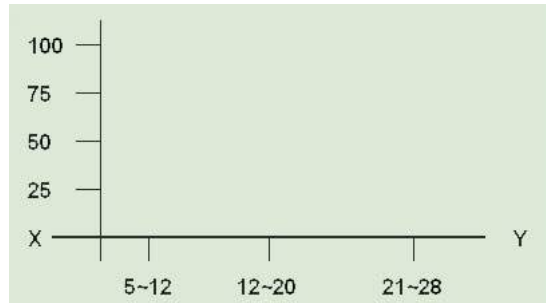
13:38-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15:1-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6: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나타남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 (서기관은 대체로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립 관계)

14. 본 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도표 형식으로 그려보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를 보인다. 변함없는 것이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마저 식은 것은 아니다)

15.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께 더 해줄 말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 (11:19), 귀신의 쫓겨 (9:34), 바알세불의 쫓겨(12:24)

16.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 (참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가 많다. 바요나, 바대메오, 바돌로매, 바라바)

요나 (= 요한난, 요한)

17.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자도 많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았다(약 2:19)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되 기도로 간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의 개념이 너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데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하셨다. 왜 그런가?

1) 죽으면 얻어 놓은 온 천하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여전히 물질 우선적인 사고다. 얻어 놓은 온 천하를 즐기기 위하여 목숨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이 아니다.)

2) 목숨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다.

19.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어야 하는가?

목숨을 얻는 길이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 (28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할 수 없다. 실제로 아니기 때문이다. 재림이 아니라면 어떤 사건이 이에 해당할까?

예수의 제자가 급증하고, 로마를 정복해 나가는 모습, 위협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 나가는 모습, 예수님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사건

마태복음 17 장

1. 변화산 위에는 모두 몇 분이 계셨는가?

7 (6명 + 하나님)

2. 예수님과 모세(율법을 대표), 엘리야(선지자의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누가 복음에는 이야기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찾아보든지 아니면 앞 뒤 문맥을 따라 추측을 하든지 하세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모세는 지도자의 힘든 사역, 엘리야는 선지자의 일과 승천)

3. 불 火 자는 人에서 빛이 나는 형상이다. 영화로울 榮은 빛이 나는 두 사람이 선악과 (木)와 격리되어 있는 모습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인류는 하나님을 닮았고 아마 몸에서 빛이 발했을 것이다. 변화산의 예수님이나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 빛이 나는 모습이었고 옷이 희어졌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바로 처음 창조되었던 우리의 모습이며 부활 후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지 본문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베드로가 정신없이 놀랄 정도

4.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말뜻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말 4:5)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 (그런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느냐?)

5.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점을 있는 대로 찾아보시오.

1)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정신없는 말, 2) 적은 믿음, 3)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에 심히 근심함 (부활의 의미는 모르고 죽음만 알아들었다)

6.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의 진보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것을 깨달은 점.(=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았다는 뜻)

7. 간질을 앓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8. (10:1참고) 제자들도 전에는 한 때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기도 했으나 지금은 하지 못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이적을 행한다면 언제든지 이적이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할 수 있고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능력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여준다. 어떠한 때에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의 믿음이란 것이 왔다 갔다 했음을 알 수 있다.)

9. 수년간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도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 믿음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뭐라고 꾸중을 하셨는지 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보시오.

야 이 풀대가리야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을 해야 알아 들냐? 도대체 영어를 몇 년이나 배웠니?

10. 많은 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한 셈이니 제자들은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이다.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제자들이 속으로 한마디씩 했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전에는 잘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지?

에이 쪽 팔리게, 관중이 없을 때 좀 살살 야단을 치든지...

11. 예수님의 답변 중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라는 말씀의 '적은'이라는 표현을 실제로는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겠다. 그 증거를 찾아보시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12. 베드로의 성격 중에 하나는 앞뒤를 따져 보지도 않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해 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의 실재가 되시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13.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특별히 그래야만 했던 상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답하시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만 세겔 받는 자: 성전세(생명의 속전)를 받는 자.

丁稅 : 로마 제국의 인두세

마태복음 18 장

1. 17장에는 수제자 베드로의 부족함을 선두로 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어쨌든 제자를 둔 선생으로 고쳐 보면 '입학시험 칠 때가 다 되가는 데 이놈들은 제대로 공부를 해 놓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제일 공부 잘 한다는 베드로는 맨날 헛소리만 해대고 아이고 머리아.....'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고 질문을 했다. 위의 선생님이라면 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야 임마 영풍한 소리하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 (시험에 나오는 공부해라)

2.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자식을 어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생사여탈권마저 가졌던 그 옛날에 어린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어린 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천진함, 순결함, 유치함, 솔직함, 순수함..... 여기 문맥에 따르면 무슨 뜻일까?

겸손하라 = 자신을 낮춤

3. 사도 바울이 전 생애를 바쳐서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어린이들도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을 자주 한다는 것을 기억 하자)

어린이의 겸손이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 훗날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 의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불쌍한 이웃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지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5. 나 때문에 한 친구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

내 팔다리를 자르든지, 눈을 땔든지 해서라도 실족케 하지 말아야 한다.

6. 그 다음 차선책은 무엇일까?

실족하기 전에 목에 멧돌을 달고 죽는 것

7. & 9절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두 가지 위험이 따른다. 한 가지는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과로 인류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사람 없음, 죄 지을 때마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없을 가능성

8.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9.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집에 있는 아흔 아홉보다 더 귀중하다? 시장에 갔다가 팔아보면 값이 더 나가나? 실제 가치는 길 잃은 양이나 집에 있는 양이나 같다. 그렇다면 길 잃은 양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잃었다가 찾은 점 (내가 남보다 더 소중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점)

10.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면 우리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친구가 길을 잃었다. 1)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2)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기가 쉽다, 2) 혼자서 권고 (떠벌리지 말고), 가까운 친구들 몇이서, 선생님과 함께

11. 길 잃은 양의 비유는 대단히 유명하다.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인가? 즉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

12.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끝내 풀이키지 아니할 경우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포기하라는 뜻일까? 참고로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든가 버린다는 말은 없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라도 돌아서기를 기다림

13.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8) 이 말씀은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

14.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무엇이라 할까요?
교회 (역으로 교회란? 두 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15. 일흔의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지,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16. 형제의 잘못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구속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가능함)
17. 1탈란트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약 6000배. 노동자가 평생 고생해야 고작 2, 3탈란트를 벌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석달 고생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다. 액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이 두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았고 - 형제가 내게 지은 죄는 아주 작은 죄이다.(당시 유대 전국의 1년 세금 총액이 800탈란트였다고 한다.)

證參 : 증인이 더 참여하여 강하게 권고하다.

마태복음 19 장

1.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 주시려 하는 것이다. 결혼 제도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_____친 부분을 힌트 삼아 생각해 보시오.

셋이 한 몸 (=삼위 일체) : 이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선한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2.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이 말씀은 결혼식 때에 거의 빠지지 않는 명언(?)이다. 결혼 제도 자체를 하나의 성적 억압이요 기독교자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자칭 선구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심한 _____이라고 말한다.

공갈

3.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이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참고로 해서 다음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써 보세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 본래 이혼하는 것이 아니지만 꼭 이혼해야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4.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혹은 대꾸)을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야 당연하지요.

음행을 했다 해도 버리면 안 되지요.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5. 4번에 적은 여러분의 답과 제자들의 답을 비교해 보세요. 좀 이상할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일평생 한 여자하고만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던 모양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과 재혼 또는 축첩이 혼한 일이었던 모양이다.)

6. 바리새인들이 왜 하필이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형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오.

헤롯이 바로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으니 헤롯과 대결을 시켜 볼 의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7. 제자들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해 보인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그 다음 한 문장을 보충해 보자. '결혼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경우와 타의에 의한 불구는 어차피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 봉사를 위해 자의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말아.'

8.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은 제자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을, 풀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3)

9.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2) 그러므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3) 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 주실 것이다, 4)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인 것은 거짓이다. 좀 이상하나요? 잘못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각 항목별로 고치든지 설명해 보세요.

1) 재물이 없는 거지는 천국에 저절로 가나? (재물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가 중요)

2) 재물이 많아도 상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문제없다.) 본문에서 재물을 버린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런 계명은 없다. 단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일 뿐이다.

3)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여전히 물질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버렸는데 여러 배로 주신다고? (물질적인 보상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4)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좋은 일에 돈을 잘 사용하는 부자도 많다.

10. 박태준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단다.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에는 관심도 없던 그가 말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진짜 없는 걸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결국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어떤 과정을 겪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믿지 않는 타인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든지)

11.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여러 배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집을 한 채 바치면 여러 채를 주겠다는 뜻인가? 만약 그런 의미라면 29절의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가?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왜 아내는 없지? 어떤 사본에는 있다.)

12. 그렇게 여러 배의 복을 받고도 보너스가 있단다. 무엇일까?

영생

13.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자권 거지권 간에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14.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오.

1) 마지막 날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2) 순서가 뒤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라. (선착순이 아니다)

15. 19장에서 가장 대조적인 것을 찾는다면?

어린이 (자신을 낮춤)와 부자 청년 (자신감에 넘치는)

이혼 증서 : 공식적으로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

鼓子 : 선천적인 성불구자나 성욕이 완전히 없는 자.

마태복음 20 장

* 참고 *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부터 시작한다. 즉 오후 6시를 0시, 오전 6시를 12시(=0시) 따라서 유대인의 시각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즉 3시는 9시를 가리킨다.

1.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할 곳을 얻게 되었을 때 다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1) 이른 아침에 일감에 얻은 사람: 오늘은 일당을 제대로 벌겠구나.
- 2) 3시에 일감에 얻은 사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조금만 빠고 일당을 주겠지)
- 3) 6시에 일감에 얻은 사람: 반나절 품삯이라도.....
- 4) 11시에 일감에 얻은 사람: (해질 때가 다 됐는데 열심히 해봐야 몇 푼 주겠나) ↔(이렇게라도 일감을 주시니 열심히 해야지?)

2. 마지막에 왔던 그 품꾼이 빈둥거리고 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를 바랐지만 능력이 안 되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7: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3. 일당을 받고서 다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1)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다니 너무 고맙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 2)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일을 많이 했는데.....
- 3)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주십니까?

4. 맨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은 삯을 받을 때 몹시 원통하였다. 이들의 생각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처음 약속을 일방적으로 잊었다, 불쌍한 동료에 대한 자비심이 전혀 없다, 주인의 선하심에 시비를 걸다.

5. 맨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일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슬픈 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나중에 온 자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한 일(업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일 자리가 없어서 걱정하던 시절을 생각해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

6. 포도원 비유는 결국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준다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며, 따라서 인간적인 방식도 아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천국 (왜 계속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가? 일을 마칠 때가 다 되어갈 때까지)

7. 19장의 내용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1) 자신의 노력과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 2) 주인 마음 대로다.(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 3)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포도원 비유의 결론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예를 개인에게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교회사적 측면에서 혹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찾아보시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교회 중심으로 옮겨 간 것

9. 그 이튿날은 누가 제일 먼저 일하러 왔을까? 이런 식으로 일당을 주면 일찍 오지 않는다. 실제 포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야기다.

그전 날 제일 늦게 왔던 품꾼 아닐까?

10. 예수님 자신의 수난 예고는 벌써 세 번째이다(16:21-23) (17:22-23). 실제로 수난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때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심각하게 들지도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중의 자리다툼을 한 것을 보아서

11. 세베대의 어머니는 요즈음 말로 하면 극성스런 치맛바람에 비길 수 있겠다. 어떤 점이 극성인지 설명해 보자.

염치 부족, 무식

12. 포도원 비유와 세베대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포도원 비유에서 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 대로인 것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인 것은 같은 내용이다.

13.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은 무엇인가?

십자가 죽음

14. 세베대의 아들들과 나머지 10제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말의 어떤 속담이 어울릴까?

그 나물에 그 밥, 50보 100보

15. 이 땅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마음껏 권세를 부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 어떠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예수님이 섬기려고 낮아지신 것처럼 높은 자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16. 20장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되어야 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시오.

代贖物

17.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소문만 들었던 소경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제대로 알았겠는가? 그러나 이 소경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를 두 가지 찾으시오.

1)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점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행위)

2) 주위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리 높여 부른 점

마태복음 21 장

1.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지 말라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2.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다. 전에도 그랬지만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4)
3. 멍에 매는 짐승(나귀)의 새끼를 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겸손한 왕 (5)
4. 연애할 목적으로, 장사를 위하여 혹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왜 나오는가?
기도하기 위하여 (13), 예배드리기 위하여
5.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는 무리를 내어 쫓으신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상한 일 (15, 그만큼 썩었음을 말한다.)
6.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라 해도 그렇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실 수 있나?
Yes -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느냐고 묻지 않았다.
No -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만만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가능한 말이다.
7.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결과를 보고(문맥에 의거)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의도인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이상의 기적적인 일도 가능하다.
8.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해 버린 이유를 앞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나 이후에 나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유대인들에 대해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1)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근거가 뒤에 있다. 찾아보시오.
21:43 (열매 맺는 백성이)
- 2) 이런 식의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경고하고 있을까?
믿노라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9.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임무는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나타낸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다.
10.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하러 간다고 하고서 가지 않은 말아들, 씨를 얻고도 실과를 제대로 내지 않은 농부들, 잃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 (임금의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 청함에 왔으되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 22장
11. 33-41에 나오는 보냄을 받은 종들과 아들은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가?
선지자들과 메시아인 자신
12. 1) 메시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나요?
쓸모없는 풀 같다.
2)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가?
기이하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귀물의 가장 요긴한 곳에 사용됐으니)

마태복음 22 장

1. 왕의 청함을 받되 오지 않은 사람과 잔치에 왔으나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왕의 잔치에 오면 초대받은 사람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사람은 주는 예복을 거절한 경우이다.)

바리새인

2. 왕의 청함을 받되 오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을 본문이 말하는 대로 찾아보고 그것들은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오.

오기를 싫어함, 돌아보지도 않음,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임 - 반역 행위

3.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악함과 관련이 없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본문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10)

4. 하나님은 우리를 1)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2) 심판 날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실 분이시기도 하다. 이 비유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보시오.

1) 초청을 거부한 사람에게 다른 종을 보낸 일 -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 2) 왕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동리(동네)를 불사른 것

5. 서로 적대적인 두 무리들이 작당하여 도저히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기막힌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다음 질문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이 질문에 만약 예수님이 “가” 혹은 “불가”로 답하면 어떻게 될까?

가하다 하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책잡을 것이며(종교적인 비난), 불가하다 하면 헤롯당원들이 고발할 것이다.(정치적인 비난)

6. 21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등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퍼부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말이 엄청나게 다르다.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을 두 가지나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치켜세웠는데 어느 말이 그런가?

참되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7. 드디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7형제 모두와 결혼한 여자의 장래에 대하여 질문하는 의도는?

부활이 없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럴 경우 얼마나 곤란하겠는가

8.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죽어서 사라진 조상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다. 무엇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렇게도 충격적이었을까? (hint: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친구란다는 말과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친구였단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산자라고 하심

9.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서 차비를 내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우리 아버지 차를 타는데 왜 차비를 내?”라고 했다. 그 뒷얘기는 생략하자. 이 할머니의 신앙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항목에 잘못이 있는가?

뜻을 다하여 : 판단을 올바르게 잘하여 하나님을 섬기란 뜻

10.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세 번이나 잠에 빠졌던 베드로의 경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면 어느 항목에 가장 문제가 있는가?

목숨을 다하여: 육체적인 노력이 부족 (마음: 외식이 아닌 진심으로, 목숨: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닌 육체적인 최선의 노력, 뜻: 지적 능력을 다하여)

11. 중요한 질문 공세에 시달렸던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단 한 번 하셨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는 질문하는 자가 없어짐

12.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인가 아니다라는 말인가?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않았느냐?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받으셨다. 핵심은 다윗의 자손이긴 하나 다윗이 주라 불렀으니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라는 의미: 바리새인들은 절반의 의미만 알고 있었다)

13.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단 한 번 질문에 나가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의 글을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켜 주라 칭한 것) _____에 관한 예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혹독한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메시아

마태복음 23 장

1. 예수님께서 무조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은 아니다. 어떤 점을 인정 하셨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심한 점(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경우)
2.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참고 11:28-30에서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를 생각해 보자)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한다.
3.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 잔치 2) 회당 3) 시장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4.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8)'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여 작은 상자에 넣어서 차고 다녔다. 그것을 무어라고 하는가?
경문: 읽지 않고 들고 다니기만 하는 성경과 의미상 비슷
5. 8절은 우리 모두가 한 분 선생님 밑에 있는 한 형제이며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결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선생이 지니고 있어야 할 어떤 면을 나타내는가?
권위 의식을 버리라
6. 9절의 아버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아버지란 단어와 용법이 다르다. 문맥으로 봐서 어떤 의미를 지닌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응되는 영적 아버지: 교황, 위대한 스승(교부)
7. 선생이나 지도자 즉 큰 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가?
겸손: 하늘에 더 큰 분이 계시니까(하나님이 계시니) :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
8. 1-12을 요약하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3가지 있다. 1)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2)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것(외식), 3)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함(교만)
9. 교회 가자고 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XX자식 꼴 보기 싫어 못 가겠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천국 문을 닫는 행위
10.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자신들보다 더 나쁜 제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 2)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면서도 (1번 답) _____ 않을 경우에는 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전도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겸손한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업신여기는 태도, 우월감
11.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과 무엇을 분간하지 못한 탓인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성전이나 제단이 그 위의 금이나 제물보다 더 중하다는 사실.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 ↔ 義와 仁과 信. 하루살이 ↔ 약대. 안 ↔ 밖의 중요성
12. 예수님의 비유에서 다음의 공통점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제물,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 하루살이'
보잘 것 없는 것이거나 가치가 덜 중요한 것
13. 무덤에 회칠하는 이유가 무엇까?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이므로 몰라도 관계없으니 그냥 추측을 해 보시오.
부자들의 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으나 가난한 자의 묘는 길 옆이나 들판에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에 닿아서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덤이라는 표로 회칠을 했다고 한다.
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에 비하여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점 두 가지는 무엇인가?
1) 조상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였지만 자신들은 그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있으니
2)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5. 반면에 예수님은 너희는 조상들과 꼭 같다고 답변을 하셨다. 어떤 점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제자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핍박할 것이니

16. 1)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실제로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의 피까지란 말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의 조상이 박해한 선지자들의 총칭

2) 그런데 왜 이들의 피값을 이 세대가 받아야 하나?

조상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상들의 범죄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며 차후에 이들도 같은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다. 즉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변모되었으며 장차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살인과 반역 (배신)의 도시: 황폐됨

18. (Nonsense) 색맹보다 더 나쁜 것은?

우맹 (소경은 진담)

마태복음 24 장

1.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은 대단히 다르다. 비교해 보시오.

1) 제자들 :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다.

2) 예수님 : 철저히 무너질 것

2. 말세의 시작과 경과와 끝은?

1) 시작 :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난리, 전쟁, 기근, 지진

2) 경과 :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음, 환난, 죽음, 미움, 미혹, 교회의 내부 분열 → 사랑이 식음

3) 끝 :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됨

3. 과거에 전도관 (=선부교)을 이끌던 박태선 장로나 현재 통일교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문선명 같은 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은 아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면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4.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거짓 선지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과 일치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5. 한국에서만도 자신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이 수백 명을 넘는다. 이 모두가 가짜인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재림은 순간적으로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6.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BC19년에 헤롯이 짓기 시작하여 AD63년에 완공된다. 80여년 만에 걸쳐 완공된 이 성전은 AD70년에 로마의 디도 (Titus)장군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된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 (1차적 의미는 BC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낸 사건을 가리킨다.)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 (단 11:31, 12:11)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7. 다음 내용은 환난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

환난이 큼

2)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찢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환난이 무자비할 것임

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모인다. 이 속담은 약간의 애매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의 독수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주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짜 그리스도

9. 임금이 행차를 하면 길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비켜 주어야 했다. 모두가 땅에 엎드리어 경배를 했다. 환난도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 누가 이것을 먼저 알고 표시를 내는가?

자연계 (해, 달, 별, =하늘의 권능) : 아마 더 밝은 빛이 나타날 것이므로

10. 1980년대에 예수 재림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 이유는 본문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을 의미한다 (1945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면 1985년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한 마디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시대의 표징으로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환난을 이기는 것이다.

11.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다음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가? 1) 재림을 홍수, 도적, 출타한 주인으로 비유한 것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

2)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

순식간에 일어남, 알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음 그러므로 평소에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

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임을 강조

12.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왜 잘못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자신들만의 삶에 빠져 있었음 120년 동안이나 주어진 경고를 전혀 무시

13.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같은 점은 무엇인가?

- 1) 피할 수 없이 순식간에 닥침, 어느 때를 알 수 없음
- 2) 미리 예고되었음(120년 ↔ 다시 오심, 무화과나무 비유)
- 3) 경고를 들어도 그것이 어떤 재난인지 알지 못함

14. 말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 1) 믿는 사람들끼리 : 충성과 지혜로 서로 돌봄(45)
- 2)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 미혹 받지 않도록

15. 본문은 말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24장을 한 개의 동사로 압축해 보시오.

깨어 있으라

※ 홍수 심판은 말세에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34절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는 말씀도 전세계적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나 타날 것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을 넘었다고 한다. 극심한 고통과 엄청난 살육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고편이었을 뿐이었다.

마태복음 25 장

1. 신랑이 오는데 왜 열 처녀? 합동결혼식인가?

신랑 신부의 밤길을 밝히며 잔치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들러리.

2. 다섯 처녀가 쫓겨나게 된 데에는 신랑도 책임이 좀 있다. 왜 신랑이 밤에 오나 낮에 오지? 그건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쫓겨난 다섯 처녀라고 하고 또 다른 역지를 부린다면?

밤에 오는 건 좋다 이거야. 일찍 오지 왜 더디 오나? =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준비 잘하고 있어라

3. 신랑을 기다리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 않았다. (O, X로) 다 졸며 잘새

4. 열 처녀 비유의 결론도 역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다.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졸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다. 기름 준비의 문제

5.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고, 신랑을 맞이하도록 부탁을 받았고, 등을 가진 점에서 외형상 열 명의 처녀들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점이 기름의 유무였다. 믿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아 보여도(예배, 공부, 찬양, 봉사, 기도, 헌금) 겉으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 하나 때문에 너무도 다른 판정을 받을지 모른다. 그것은 무엇일까?

기름 =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6.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분별되는 때는 어느 때인가? 또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때인지 24장에서 배운 것으로 답하시오.

신랑이 왔음을 안 순간 =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

기도도 후회도 소용이 없다.

7.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빌리면 안 될까? 친구들이란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빌려주다니.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의리상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 문제와 관련 지어 설명해 보시오.

구원은 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이다.

8. 문이 닫힌 후 온 다섯 처녀들에게는 너무나 냉정한 현실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이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이라 해도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추호의 자비심도 없음(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실 두 가지를 이 비유에서 찾아보자.

문이 닫힌 것,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9. 달란트 비유의 어떤 사람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1) 돌아온다, 2) 맡긴 것이 있다, 3) 결산을 한다, 4) 하인이 있다.

10. 한 달란트의 양은 얼마쯤 될까?

34kg, 1돈=3.75g, 34kg=약 9,067돈 = 36,268만원 = 3억 6천만원

1달란트 = 6,000데나리온 = 6,000일의 품삯 = 3억 내지 3억 6천만원

11. 1) 달란트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주어졌나?

재능대로 (=달란트 대로)

2) 회계하는 방법에 의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칭찬 받을 수도 있는가?

있다. 양으로 계산하지 않고 비율로 계산하니까.

12. 5달란트를 남긴 일과 2달란트를 남긴 일 중에 누가 더 칭찬을 받았으며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같은 칭찬을 받았다.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13.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 받을만한 점을 찾아보자.

1) 바로 가서 2) 장사하여 (위험부담을 감수)

14. 이익을 배로 남겼는데도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2) 주인이 돌아온 것이 오랜 기간 후이었기에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별 것 아니었을 수도.

당시의 이율이 1할이었다고 한다. (8, 9년이면 2배로 이자가 는다)

15. 옛날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다. 밭에 파묻어 두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 버리면 '밭에 감추어진 보배' (마13:44)가 되는 것이다. 1달란트를 맡은 종의 돈 보관 방법 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방법은 아니었다.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주인을 잘못 안 점, 주인을 두려워 함: 결과적으로 소극적으로 섬김

16. 1) 충성한 종들이 충성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가? 2)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받고 싶은가?
 - 1)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물질적 노력에 대하여 영적 축복)
 - 2) 물질 아닌가? 남고 달란트의 절반이라던가
17. 29절을 6글자의 한자 속어로 고쳐 보세요.
 貧益貧 富益富: 기회는 공평하지만 결과에까지 공평하지는 않다.
18.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평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
 - 1) 공평하신 하나님: 재능에 따라 맡기심
 - 2)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있는 자(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19.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 1) 의인: 창세로부터 저희를 위하여 예비된(영생의) 나라
 - 2) 악인: 영영한 불(영벌)의 나라

상속하라: 아무 관계없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받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었다.
20. 우리 주변의 악하고 불쌍한 사람은 모두가 _____ 이다.
 예수님
21. 의인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심판 때에 행할 대답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칭찬이나 책망의 이유를 모르는 점
22. 세 비유에서 책망을 받은 무리들은 무슨 큰 악을 행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왜 쫓겨나야 했는가?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 아니한 죄 : 다섯 처녀, 한 달란트 맡은 종,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 자

마태복음 26 장

1.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짜는 아주아주 옛날에 정해져 있었다. 1) 언제 돌아가시도록:

유월절

2)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출애굽 때

2.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에 제자들이 즉각 반응을 보인다. 다음 예고의 말씀 중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가장 강했던 것은?

1)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2)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3)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4)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진담으로 들지 않았거나 자신과의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들었거나 아마 베드로가 한 번 말렸다가 사탄이라고 책망 받은 일이 있는 탓도 있기는

3.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몰려 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꾀계(=흉계)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다. 어떤 점이 그럴까?

유월절 어린양은 유월절에 죽어야 하는데 왜 변경시키려고?

고전 5:7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4.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이 여인의 의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 또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

1) 거룩하게 하는 예식으로 (창 28:18, 레 8:12)

2)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3) 손님을 환대할 때 (눅 7:46)

4) 전통 장례법에 따라 시신에 바른다. (요 19:40)

3번, 4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5.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오: 이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6.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꾀계에 유다의 배신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 아무리 호작질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7.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기분 나쁜 일이 있나요? 꾸중을 해보시오.

1) 어떻게 선생님을 배반하니?

2) 팔려면 좀 비싸게 팔지 은 30이 뭐야? : 노예의 몸 값,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함

8. 성경은 유다가 도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다가 배신한 동기에 대하여 재미난 설명이 있다. 즉 유다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민중의 지도자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다. 그런 설명이 가능한 정황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팔았던지 간에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려고 왔으니 유다가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 준 것이 아니냐?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벌 받은 사람은 많다. (바로, 예후, 예돔)

9. 다음 문장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게 → 제게

10. 다음 질문에 대하여 1)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는데 가슴 뜨끔한 예수님의 말

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 안 그런 척 오리발을 내밀어 본 어느 제자의 말은?

내니이까?

3) 그릇에 손을 넣다가 깜짝 놀라 손을 빼게 해 버린 예수님의 말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4) 예수님의 어느 말에 “야 정말 귀신이네” 했을까?

네가 말하였도다.

11.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일은 다 마치고 고독한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작별 인사를 하신다. 그 인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사실 두 가지는 무엇인가?

1)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재회가 있을 것이며

2)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포도주) 29

하늘나라에서 잔치, 그 때까지 아픔으로 기다릴 것

12.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시절에 크리스천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일종의 식인종이다. 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나까?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리고 이 피를 언약의 피(출 24:28)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할 때는 큰 약속을 하신다는 뜻인데 무슨 약속인가?

이 피를 마시는 자 마다 죄사함을 받을 것

14. 양떼를 흠어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자를 친다. (31)

15.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유다는 만고의 역적이 되어 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비난받을 것이 없나? 제자들이란 것이 어찌 이 모양일까?

다른 제자들은 소극적 배신, 유다는 적극적 배신

16. 겐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함 (의미를 잘 알지 못함)

17. 우리의 피곤과 아픔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구절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1

18. 겐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에서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

극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 순종

19. 다음 두 가지 질문 중에 대답하기 쉬운 것을 골라 한 질문만 답하시오. 1)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2)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1) 예, 기도 응답 중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2)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

20. 큰일을 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과 졸았던 제자들의 그 후 행동을 비교해 보자.

예수님: 고민하고 슬펐던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심

제자들: 그렇게 장담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모두 도망감

21. 정말 철없는 제자들이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다 도망쳐 버리고, 수제자란 녀석이 모른다고 배신을 해 버리고 한 놈은 선생을 팔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겐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위로 받기 원하심

그렇게도 철 없는 제자도 위로가 되는가?

데리고 가심 38

22. 간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49

23.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친구여”라고 부르셨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 있을까?

가령 우정이라든가 서글픔과 연민

24. 제자가 칼로 적의 귀를 잘랐을 때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린 이유는?

1)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2) 각본 (예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54

25.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형량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잡혀가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잡혀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 56+54

26.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음에도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쳐 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번에 걸쳐 수난을 예고했음에도 제자들은 실마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잡혀서 죽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함. 십자가 처형 후 모두가 포기하고 고기 잡으로 간 것으로 보아서도 다시 살아나리란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은 점이 보인다.

27.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치욕적인 실수를 저지른 원인을 설명해 보자

1) 기도도 준비하지 않음 (네 번에 걸쳐 수난을 예고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2) 멀찍이 따라감

3) 원래 성격상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 잘하는 사람

28.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며, 로마법에 따르면 그에 대한 형벌은? (참고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는 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하나님을 모독? 僭濫하다. 무죄

29. 1)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하여 재판이 열린 증거는 무엇이며, 2) 이 재판은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전문적인 것은 접어 두더라도 상식선에서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보자.

1) 증거를 찾았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온 점

2) 야간 재판, 변호인이 없음, 속전속결,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함 (산헤드린이 아님), 죽이기로 작정하고 꿰뚫은 재판, 선고 당일애 사형을 집행한 것

30. 67-68절은 아이들의 어떤 놀이와 비슷한가?

손가락으로 꺾 찌르고 알아맞히기: 선지자라면 범인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는 조롱

31. 1) 베드로가 정말 철없는 짓을 했음을 성경은 자세히도 밝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했는가를 설명해 보세요.

물은 자가 婢子(=계집종), 니 무슨 소리하노(비자를 몰아붙임, 부인), 맹세+부인, 저주+맹세+부인.

2) 그날 이후 베드로에게는 병이 하나 생겼어요. 팍팍 팍팍 놀라는 병이지요. 그 병 이름이 뭘까요? 물론 병원이나 사전에 없는 병인데 닭소리 알레르기, (닭울음 놀람증)

32.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양의 죽음과 공통점은? (2)

유월절에 죽는다. 그 피로 죽음을 면한다.

33. 예수님은 고의로 죽으려 간 점이 있다.

1)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점

2)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고도 밤중에 조용한 곳으로 가신 점

3)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퍼부은 것(23장)

4) 재판 때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한 번 대답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목에서만 대답을 하심

마태복음 27 장

1. 유다의 뉘우침이 베드로의 뉘우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해결을 보려고 한 점 (죽었다는 것은 답이 아님)
2.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이 있으면 바르게 고치시오.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돈이라고 해서 피값이라고 불렀고 목매어 죽은 피가 묻었다고 피밭이라고 불렀다.”
1) 목매어 죽은피가 묻었다고 → 피값으로 샀다고 (각 1점)
2)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 예수를 판
3) 사도행전의 내용과 다른데. (목매어 죽었는데 왜 피가 묻어요?)
참고: 행1:18-19와 차이점이 있는 이유. 1) 유다가 바로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거기서 자살을 하고 비탈에 떨어져서 굴렀을 가능성, 2) 유다가 다른 곳에서 자살을 했어도 그 밭에 제일 먼저 매장이 되었을 가능성
3. 여기에 등장하는 은돈 30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팔시를 받지? 내가 축구공인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4. 총독이 예수님의 답변을 기이하게 여긴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만 답을 함, 변명을 하지 않음
5.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해도 그것이 죄가 되거나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 해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던 점과 어떻게 다를까?
유대인의 왕이라도 자기 권한 밑이니까. 속국의 왕이 누구든 관계없다.
6.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심판하고 선고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빌라도가 내린 판정은?
무죄
7.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가서 만고의 죄인이 된다.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
1) 마누라 말을 안 듣고, 2) 소신이 없음, 3) 민란을 두려워함, 4) 생각이 짧다.
8. 흑인의 피를 받은 한국인이 있었다. 어릴 때 자라면서 하도 놀림을 많이 받아서 피가 나도록 검은 피부를 문질렀다고 한다. 아무리 문질러도 피가 나면 낫지 검은 색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 그 엄마가 울며울며 말했다. “그래 피가 나도록 문지르고 또 문질러 봐라.” 이 엄마의 심정으로 빌라도에게 한 마디 해 주자.
그래 손이 닳도록 씻어보라 죄가 씻기나.
9. 예수의 죄가 무엇이라고 물은 데 대한 유대인의 답변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답 대신)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더욱 무식하고 막무가내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유대인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상상하지 못하고 해댄 간 부은 소리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11.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결혼할 때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순간의 선택이 2,000년을 좌우했답니다. 무슨 선택일까?
바라바냐 예수냐
12. 홍포, 가시면류관, 오른 손의 갈대, 무릎 꿇은 병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없을 때에도 인내를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에 대한 조롱,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조롱을 말없이 받으셨거든요.
13. 그 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욕, 희롱, 욕한 자들은 누구누구인가?
로마 군인들 (27:31) 강도들(44), 지나가는 자들(39),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41), 거기 섰던 자 중에 다른 자들(47)
14. 구레네 시몬은 그 날 역세계 재수 없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 날의 재수 없음이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다. 그의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말이 막15:21, 롬16:13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이 말은?
억지로 진 십자가
15. 예수님이 본래 약골이었을까? 자기 십자가를 왜 못 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야 했을까? 이 유를 본문에서 찾으시오.
처형되기 전에 힘을 빼 버릴 요량으로 채찍질을 함 (26)
16. 쓸개 탄 포도주(해융에 머금은 신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거

부하시는 걸까? (당시 관습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것을 죄수에게 먹었다고 함, 사람을 죽일 때도 술을 먹인 예가 있다.)

1) 하나님의 잔을 끝까지 받겠다. =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알면서 스스로 진 십자가이므로 고통을 회피하지 않겠다.

2) 26:29 의 약속

17.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 중에 1)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사건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히10:19-20)

2) 곁에 섰던 자들이 가장 놀란 것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 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

3) 며칠 뒤까지 계속 충격을 준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점 (52-53)

18.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도 놀랄 사람은 놀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되어진 일을 보고 1)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은 누구이며 2) 도대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1)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2)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19. 예수님께서 이런 수난을 겪고 계실 동안 예수님의 편이 되어 준 사람은?

멀리 서 있는 여자들,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20.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27장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사53장을 읽지 않을 수 없다. 사 53:1-9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두 개만 골라 보시오.

1) 입을 열지 않았으며, 2)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 3) 멸시를 받아서

21.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무리를 향하여 몇 번이나 질문을 하였는가?

예수를 석방시키거나 가벼운 형벌만 주기를 원하며 4번

22.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

23.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와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면?

예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됨. 부활 사건 때 있었던 일이 초대 교회의 밑거름

24. 어느 나라에서고 대역 죄인의 시체는 합부로 장사를 지낼 수 없었다.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체는 몇 날 며칠 동안 그대로 두어서 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친척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시체를 쉽게 내준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의 죽음이 무고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

25.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을 가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사사로이 말한 이 내용을 제자들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1) 누가 기억해 내었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2)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죽기 전에 유다를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26. 제자들 중에 잠시 정신이 나갔던 제자가 둘 있었다면 누구인가?

베드로와 유다

海絨: 스펀지처럼 다량의 액체를 빨아들이는데 바다 생물의 뼈에서 만들어짐

마태복음 28 장

1.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그 때까지 사실은 아무 감동도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로 바뀌게 된다. 무슨 뜻일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주일로
2. 이 여자들이 정말 용기 있는 여자들이었다는 증거를 찾으시오.(2가지)
1) 미명에, 2) 무덤에
3. 여자들이 찾으려 한 것은 무엇이며 찾은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 살아나신 예수
4.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라면 도무지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을 여자로 삼은 것이 그렇다.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나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이해는 하자. 그 당시의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가 되면 안 되는가?
여자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
5. 군병들의 이야기가 민간에 퍼졌다. 그 내용 중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1) 보초가 잤다. 그래도 벌을 안 받았다?
2) 정예부대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적질 해 갔다.
6.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도 소용이 없는 법이다. 대제사장들도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이다. 십자가 사건에서 수많은 증거들(휘장이 찢어짐, 무덤이 열린 것, 지진)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억지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무덤을 지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무슨 궁리를 했는가?
돈으로 매수
7.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간 나타나셔서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마태는 이런 사실을 거의 생략하고 있다. 그저 간략하나마 한 군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어디에?
갈릴리 (소외 지역, 이방의 상징)에서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전도의 명령을 사역의 시작과 끝을 갈릴리에서
8.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흔히 지상 대명이라고 불린다. 이 내용을 네 개의 동사로 정리를 해 보자.
1) 가서, 2) 제자로 삼아, 3) 세례를 주고, 4) 가르쳐 지키게 하라
9.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아마 최후의 심판 때에도 그럴 것이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짓으로 때울 궁리를 하는 사람들
10. 3장의 2번 답 32번